

세상을 바꾸는 새해 첫 걸음

푸른 뱀의 해 2025년이 밝았다. 아산재단의 사회복지·의료복지·장학·학술연구 사업에 참여해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에 힘쓰는 이들의 새해 소망과 다짐을 모았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근무하는 서울시 양천구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부터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 고립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만나며 당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축제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와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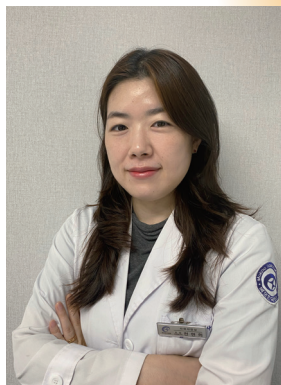
사회복지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박지형 과장



환자들의 감사가 저의 원동력입니다

아산재단과 제가 근무하는 목포한국병원의 인연이 벌써 10여 년입니다. 그동안 아산재단의 도움을 받은 목포한국병원의 환자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에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산재단의 SOS 의료비지원사업 덕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이 고마워하며 퇴원하는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은 제가 오랫동안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꼭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느긋했던 마음도 다잡으며 2025년에는 육아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의료복지 - 목포한국병원 천현희 의료사회복지사





저의 연구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학과 박사과정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계속하는데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때에 선배님들이 장학생 간담회에서 조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의생명 분야를 공부하는 장학생들과 고민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2025년에 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려 하는데, 학계의 평가와 피드백이 무척 기대됩니다. 제 연구가 학문적·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사업 - 임성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노인들의 삶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을 위해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해 ‘돌봄의 위기와 정서지원 로봇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 로봇을 실제로 사용한 노인과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돌봄 로봇의 실질적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모두 정리되는 2025년 봄에는 노인의 존엄함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봇 역할의 재정립과 사람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전자공학, 의공학, 기계공학 연구팀과 함께 노인일자리 혁신을 위한 로봇 기술 적용 융합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따뜻한 기술이 노인들의 삶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연구성과를 이루는 2025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학술연구 -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